사하배움마당

제7호

발행 사하구 주소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220-4801~6 팩스 220-4809 발행일 2017. 6. 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부산 평생학습 몸으로 느끼다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박람회 열려

부산의 평생학습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시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박람회가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부산' 이라는 주제로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각각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물과 방향 등을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대중화를 이루는 뜻 깊은 행사였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도서관, 16개 구.군,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 평생교육기관 등 80여개 기관이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홍보·체험관 등 106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동아리 발표, 강연회, 토크콘서트, 백일장, 청춘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첫째 날은 시와 교육현장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여 격려를 보냈다. 개막식에서 서병수 시장은 사람과 기술, 문화를 융성하는 데 있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철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배움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나눔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했다.



오픈무대에서는 '내 인생의 선생님, 나의 가족, 나의 삶' 이라는 주제로 백일장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글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엄마와 초등학교 자녀가 나란히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백일장이 끝나고 난 뒤 대학교 대표 동아리 8개 팀의 댄스, 응원 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마당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하구의 풍물놀이와 플래시몹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둘째 날에는 우주항공, 3D펜 체험이 가능한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교육, 강연, 토크콘서트, 청춘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공연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계승하는 것에서 IT 산업, 드론 체험 등 폭넓은 평생학습의 장을 볼 수 있었고 장애인과 비문해인, 시니어 세대를 아우르는 시도도 엿보였다.

전시, 체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106개의 부스는 저마다 자연과 역사, 인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었다. 남구의 소막마을 목공예, 동래구의 뚜기·뚜미 전통부채 만들기는 그런 재미를 더했다. 기부앤테이크 협동조합은 폐지를 이용한 친환경 DIY가구제작을 선보였는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마을기업이라 특히 인상적이었다. 입지 않는 청바지를 이용한 연제구의 퀼트도 재활용과 고수익 창출의 좋은 사례로 보였다. 단순히 종이접기에서 발전한 사하구의 북폴딩도 폐서를 이용한 예술작업이라 눈길을 끌었다.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캐리커쳐 그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여성들은 네일아트 그라데이션의 체험홍보부스와 사랑을 전하는 비누 플라워, 미니 꽃다발 만들기와 디퓨저 체험,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에 관심이 많았다. 양식민(40세·동의대학교) 씨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은 "같은 기관끼리는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기관과는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런 자리에 참석해 보니 앞으로 공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혜진(30세· 사회복지사) 씨는 부스가 작아서 수강생들의 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최정연 평생학습사는 생애주기별 계획을 상담하는 부스와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담부스의 위치가 휴게존 옆에 있어서 상담진행이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평생학습 홍보, 체험 뿐 아니라 학술 포럼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기하고 평생학습으로 인재를 키우고 나눔으로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부산' 이 되기를 바란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 주간 백일장 당선작

나의 삶

가낙 이내윤 (최우수상)

세상은
나를 위하여
펼쳐진 도화지

하나의 꿈을 위하여
영혼이란 향수를 마시고
육신이란 몸뚱이로
세상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에 꿈이 있고
꿈틀거리는 것에 내가 호흡하며
발길 닿는곳에 숨차오르는
뜨거운 감동 드라마

아쉬움으로 후회하고
뒤돌아보아도
잠시 동안 거친 숨을 달랠 순 있어도
심장을 멈출 수 없으니

끝없이 도전하고
무한대에 상상을 그려가야 할 생

인생은
사진처럼 정지시킬 수 없는
생방송



제1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백일장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내윤씨(52세. 신평동)는 2012년 「자연은 나를 품으려 한다」 시집을 출판하였고 현재 SNS로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언어와 신체가 불편하지만 나의 곁에는 음악과 시가 있다"라며 시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진 맨 오른쪽 위치)

구민이 인재다. 빠~빠~빠~빠

사하구 평생학습 플래시몹으로 뭉치다.



우리구 평생학습을 알리기 위해 주민강사, 평생학습동아리 등 평생학습 주민리더 50여명이 모여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남다른 열정으로 "늴리리빠빠 플래시몹" 연습을 해 왔다. 우리에게 친숙한 '꿍따리 샤바라' 원곡을 평생학습에 관해 쉽게 알수 있도록 개사하고 신나는 퍼포먼스를 곁들여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 행사와 다대 알뜰장터에 깜짝 출연하여 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사하구 평생학습 플래시몹은 계속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평생학습관에 문의하길 바란다. (문의 ☎ 220-4117~8)

가까운 곳에서 누리는 평생학습

6개 행복학습센터, 23개 강좌 개강

지난 6월 7일 다대 도서관의 '논어 에세이'를 시작으로 2017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동 단위의 평생학습 공간이다. 사하구는 거점 행복학습센터인 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신평 1·2동, 장림2동,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한다.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주민들의 학습 참여와 만족도가 높다. 개설 된 23개 강좌 중 정리수납 컨설턴트, 홈 바리스타, 한국사 교육 등 7개 강좌는 작년에 인기가 많아 올해 다시 개설되었다.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전통음식체험'은 우리 먹거리를 통해 쉽게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다(多)복한 가족' '인성 놀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이 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강좌 중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동미술교실, 방과 후 키즈 쿠킹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관심있는 분들은 각 행복학습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을 행복학습센터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naver.com

센터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요일)	모집인원(대상)	운영장소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거점 (220-4117)	지역문제체인지메이커	9.6~11.1 (수) 10:00~12:00	30	사하구평생학습관
	사하그린리더발굴과정	9.5~11.14 (화) 10:00~12:00	30	사하구평생학습관
신평1동 행복학습센터 (220-5212)	시니어 스마트폰활용교실	7.5~9.27 (수) 15:00~17:00	20(60대 이상)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다(多)복한 가족	9.6~11.29 (수) 10:00~12:00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사교육 (엄마들을 위한문화유산길라잡이 2)	9.7~11.30 (목) 10:00~12:00	15	동매누리작은도서관
	아동미술교실	6.15~8.31 (목) 15:00~17:00	15(초등)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신평2동 행복학습센터 (220-5242)	정리수납컨설턴트자격증취득과정	9.4~11.6 (월) 10:00~13:00	25	신평2동주민센터
	홈 바리스타	9.5~10.31 (화) 10:00~12:00	20	신평2동주민센터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전통음식체험	9.7~9.21(목) 10:00~12:00	20	모래톱행복센터
	인성놀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	9.5~11.14 (화) 10:00~12:00	20	다문화센터
장림2동 행복학습센터 (220-5302)	수경제배로 베란다 텃밭 가꾸기	6.13~9.5 (화) 14:00~16:00	25	장림2동 주민센터
	실버건강 라인댄스	6.10~10.21(토) 10:00~11:00	30(만 65세이상)	지산유치원
	정리수납 컨설턴트 자격증반	6.12~7.19 (월, 수) 14:00~16:00	25	장림2동 주민센터
감천1동 행복학습센터 (220-5422)	어르신 하모니카 교실	7.7~11.24(금) 16:00~18:00	15	감천1동 주민센터
	퀼트, 홈패션	7.6~11.23 (목) 14:00~16:00	15	꼼지락 공방
	방과 후 키즈쿠킹	6.12~9.18 (월) 16:00~18:00	15(초등)	감천1동 주민센터
회화나무작은도서 행복학습센터 (220-4834)	앙금플라워 지도자과정	7.6~9.28 (목) 10:00~12:00	20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삶을 바꾸는 읽기와 쓰기	9.1~11.24 (금) 10:00~12:00	15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동화와 떠나는 진로여행	9.5~11.28 (화) 10:00~12:00	15(성인)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행복한 나를 위한 미술 (치매 예방 미술 프로그램)	7.6~9.21(목) 10:00~12:00	20(중/고령자)	사랑채 노인복지관
다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220-5864)	책놀이지도자(2급) 자격증과정	9.7~11.30 (목) 10:00~12:00	30	다대도서관
	논어 에세이	6.7~8.23 (수) 10:00~12:00	30	
	우리아이에게 딱 맞는 독서지도	9.6~11.29(수) 10:00~12:00	30	

※ 강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하구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배달강좌

사하구는 배달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구민 누구나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있는 사하구청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캘리그라피 배달강좌를 개설하였다. 지난 5월 오전 당리동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30대에서 50대의 9명의 주부들이 캘리그라피 연습에 한창이었다. 이 날은 8주간의 캘리그라피 3급 자격증 수업의 마지막 날이다. 수강생들은 자격증 작품을 위해 한글자 한글자에 집중했다. 수료식에서 양미순(46세, 괴정동)씨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1,2주 후에는 재미가 붙고 길거리의 캘리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며 "캘리를 쓰는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힘든 것을 잊는 것 같다.다른 학부모들을 알게 되고 나의 소질을 발견하게 되고 재미와 욕심이 생겨 2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강사로 등록 되어 있는 소혜란 강사는 2016년 학습관에서 캘리그라피 2급 자격증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로써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감동을 주고 이것이 캘리그라피의 매력이다. 짧은 시간동안 수강생들의 많은 발전이 있었고 힘들게 시간을 내어 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드림스타트팀은 매년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자격증반은 배달강좌와 연계하여 처음 개설하였다고 한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수강생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의 변화로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수강생들은 차후 사하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서 2급과 1급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동아리, 취업 등으로 이어져서 이번 배달강좌가 사회로 한 발 더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띵똥~ 장애인 복지관에 강좌가 배달됐어요"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배우는 한자교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우렁찬 목소리가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너머로 새어 나간다. 한문교실 반장인 정욱균(55세·다대동) 씨의 구령에 맞춰 하는 인사로 항상 활기찬 수업이 시작된다. 2월 한문교실 동아리 회원들이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배달강좌를 신청했다. 다행히 배달강좌에 선정되어 3월 10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회원은 50대부터 70대까지 학구열에 불타는 남녀 성인들이다. 그 중 70% 이상이 남성이다. 한자를 강사보다 잘 할 것 같은 어르신들이 많다.

붓글씨를 잘 쓰는 손형주(72세·감천동) 씨는 "혼자 공부할 때 몰랐던 것과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좋다"며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그는 수업 중 배운 내용을 붓글씨로 쓰면서 복습하는 모범생이다. 이름처럼 피부가 곱고 밝은 표정의 백순화(64세·당리동) 씨는 한자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자꾸 더 써보고 싶다 한다. 그녀는 필순을 자꾸 깜박한다며 한자 획마다 일일이 번호를 매기는 필기의 여왕이다. 백순화 씨가 다시 학교에 다니면 정말 공부를 잘 했을 거라는 강사의 칭찬에 모두가 크게 웃는다. 강사가 복잡한 한자를 너무 빨리 쓸 때는 천천히 써달라고 한다. 한 번 더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다. 수업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다. 강의는 5월 29일 종강했으나 한자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는 회원들 덕분에 6월 한 달 동안 수업을 더 하기로 했다. 강사의 재능기부로 수업이 연장된다.

한문교실 동아리 회원들의 한자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배달강좌가 더 확대되어 지속되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아름다운 그대

배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공부로 힐링하는 주민강사 강형란

강형란(67세 · 장림 2동)씨는 배우는 일이 즐겁다. 40 중반이 되었을 때 딸이 대학을 가자 딸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자신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56세 때 어머니를 잘 모실 생각으로 요양사 공부를 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 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면서 자신이 상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였다. 심리 상담을 공부하다가 효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운 것을 맞벌이 가정에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효 인성 공부를 하다 보니 사자소학도 가르치게 되었다. 어려운 한자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평생학습관에 와서 동화 구연까지 배웠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자격증만 20개를 취득하게 되었다. 효 인성 교육을 오랫동안 하다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키우고 싶었다. 2016년 8월부터 10주 동안 평생학습관에서 효 인성 교육 3급 과정을 재능 기부하였다. 수료 후 5명이 동아리를 만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동아리 회원 중 2명은 유치원 강사와 모래톱 행복 마을에서 강의를 맡게 되어 일자리를 터주기도 하였다.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것은 더 큰 보람이라고 하였다.

2017년 1월 현재 대학원에 입학하여 상담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움으로써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고 공부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하였다. 공부하고 있는 상담학 대학원을 졸업하며 힐링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1층은 누구든지 와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쉬어갈 수 있는 곳, 2층은 북 카페를 열어 독서 지도 치료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단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보고 싶은 큰 소망을 키우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 인생을 떠날 때 후회 할 것 같아 공부합니다."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다.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강형란씨는 배움의 꼬리를 언제까지 이어 갈지 아무도 모른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다양한 연령층 맞춤식 교육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괴정동에 있는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양 · 취미과정부터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운영한다. 교양취미과정으로는 서양화, 전통다도와 홍차, 타로카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바이올린, 플롯, 하모니카 등 악기연주반과 성악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미술심리치료사, 아동요리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과 꽃예술아카데미, 자수공예 전문가 양성과정도 있다. 6월부터는 생활영어회화와 중국어 회화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양성 수업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인기가 매우 높다.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실시하여 학교 안팎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으로 인정되어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제 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다. 수강료는 유료이고 각 강좌마다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cedu.dongj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구 · 군-지역대학 평생교육 협력공모사업에 해마다 선정되어 사하구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료교육 프로그램과 실업자 · 미취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성미 교수는 "지역주민들이 수준높은 평생교육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밝혔다. (문의 ☎ 200-3244)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배움정보마당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특강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의 글로벌 재능과 리더십

7월 26일(수) 오후 3시 사하구청 4층 대강당

사하구는 미래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 변화의 흐름을 알려주고 생각하게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키워 그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 주도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의 글로벌 마인드 특강을 마련한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문의 ☎ 220-4801~7)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보건소에서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배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 사하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학습을 만날 수 있다.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교실' 은 영유아기의 건강을 도모하고 올바른 영유아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사하구 보건소에서 열린다.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총 4기로 이루어지며, 1기당 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0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선착순 15명이다. 사하보건소 지하1층 보건교육장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열리고 있다.

처음 마사지 수업을 받으러 온 부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아기가 혹시 울지 않을까, 마사지를 잘 받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얼굴에 묻어났다. "건강하게 자라라. 아프지 마라. 아가야 사랑해~" 강사의 노래와 함께 수업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기 전 아기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리도리' '곤지곤지' 같은 신체놀이를 시작했고 아기들도 엄마들도 곧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안상희(한국오감놀이협회회장)강사는 아기가 충분히 먹고 잠을 자고 난 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편안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아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한다. 깨끗한 손으로 손바닥을 서로 비벼 손의 온도를 높여주었다. 손이 차갑지 않아야 아이가 놀라지 않는다. 먼저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마사지할 준비가 되도록 눈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몸 전체를 쓸어내린다. 강사는 아이의 머리부터 시작해 어깨, 허리 , 배, 허벅지, 손, 종아리, 발 순서로 마사지를 시작한다고 일러두었다. 얼마나 편안했던지 마사지 도중 잠을 자는 아기도 있었다. 반면 뒤집는 시기의 아기들은 마사지 도중 자꾸 뒤집어 엄마가 애를 먹기도 했다. 아기들은 대부분 마사지를 받으며 웃기도 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아기가 웃으니 엄마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강생인 엄마들은 '수업이 2주 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 . '수업이 조금 더 많다면 배운 것을 외워서 집에서도 아기마사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였다.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교실' 은 평생교육이 성인들만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게 만든 강좌이다. 사하구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교육을 만날 수 있어 참 좋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이 모든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 ☎ 220-5762)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동아리톡톡

우리 소리 배워서 나누자

전통을 사랑하는 '소리너름'을 찾아서

우리 소리와 놀이를 좋아하는 구민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소리너름'은 우리 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회원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소리너름'은 지역 주민 10여 명이 우리 소리와 풍물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동아리다. 2013년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정영고(61세 · 괴정동) 회장이 '소리너름' 공간을 마련하면서 탄생했다.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미소요양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하문화원, 부산국악원, 민주공원, 열린 시민터, 해봄 골목축제 등으로 이어오고 있다.

사하구 회화나무길 67 지하 공간에 동아리 '소리너름' 공간이 있다. 최적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직접 방음벽을 시공했다는 정영고 회장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우리 소리가 좋아서 우리 소리를 배워서 나누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리와 놀이 풍물을 학습하여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각종 행사 활동을 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한다고 했다.



소리 너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0명의 회원이 정기 모임과 연습을 한다. 정기 모임 이외에도 틈만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리너름' 공간을 찾아와서 연구하고 배운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을 가진 50~60대다. 가정과 직장이 있는 장년의 취미 활동으로는 쉽지 않은 애정과 희생이 요구되는 동아리 활동이다. "해봄 지역 축제나 하단 성당 축제, 요양 병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가락과 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재능으로 주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김용호(53 · 당리동) 회원은 말한다.

회원들은 우리 소리와 놀이를 학습한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 강변에서 전해지는 소리와 놀이에 대해 배운다. 매월 1회 이상 우리 소리와 풍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지난 5월 특강은 우리 소리 민요 중 바다에서 유래된 소리였다. 강변에서 유래된 소리와 삼도 풍물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습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고찰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서 배우고 연구하는 소리 탐방도 한다. 올해 소리 탐방은 7월 중 밀양지역으로 갈 예정이다. 밀양과 낙동강 주변의 소리를 탐방하며 연구한다. 전래민요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와 전망을 찾아보고 학습한다.

지속적으로 지역 봉사 활동과 문화 행사를 한다. 매월 3주 토요일 하단동 효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요와 풍물 공연을 한다. 회원들의 완벽한 전통문화 재연은 어르신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다고 한다. 올해 활동한 주요 문화 행사로는 5월 6일의 조선 통신사 행렬과 5월 19일의 백스코 행사를 들었다.

사물놀이와 지신밟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소리를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다. 우리 소리와 놀이를 좋아하고 배워서 나누자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보인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배움으로 더위를 날리자

사하구 평생학습관 13개 여름특강 열어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6월 말부터 8월까지 여름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심을 끄는 강좌로는 청소년 대상 '나는야 미래의 배우'가 있다. 평소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던 청소년들은 방학동안 참가해 끼를 발산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1인 1강좌를 신청 할 수 있다. 관심있는 주민들은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자 (문의 ☎ 220-4117~8)

대상	강좌명	교육기간(요일)	모집인원	비고
청소년	3D건축모형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한국사	7.25~8.22 (화, 목) 10:00~12:00	20명	재료비2만원
청소년	내 아이 책 읽는 습관기르기	7.26~8.25 (수, 금) 15:00~17:00	30명	교재비5천원
청소년	나는야 미래의 배우	8.7~8.28 (월) 18:00~20:00	30명	
청소년	아하! 과학원리 – 선박해양체험교실	8.10~8.17 (목) 13:30~15:00	30명	재료비2만원
초등	북아트로 방학숙제 완전해결하기 (1일특강)	7.24/7.27/8.21/8.24 10:00~12:00 (저학년) 14:00~16:00 (고학년)	30명	부모&자녀2인1팀 (재료비회당 4천원) 회차별 별도신청
성인	건강한여름나기 1.냉장고& 옷장 정리	6.29~7.6 (목) 10:00~12:00	30명	
성인	건강한여름나기 2.몸보신 약선 보양식만들기	7.5~7.26 (수) 10:00~12:00	20명	재료비6만원 장소 : 춘결요리학원
성인	건강한여름나기 3.건강음료만들기(수제청)	7.11 (화) 10:00~12:00	30명	재료비1만원
성인	비타민건강교실	7.4~7.25 (화) 10:00~12:00	50명	
성인	휴가철 건강안전교실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등)	7.13 / 8. 10 10:00~12:00	20명	장소 : 사하소방서
성인	알면 아주 유용한 상속제도	7. 4 19:00~21:00	50명	
성인	한 여름에 유용한 천연제품만들기	7.5~7.26 (수) 10:00~13:00	30명	재료비6만원
성인	전통매듭으로 패션소품만들기	7.6~7.27 (목) 10:00~12:00	30명	재료비6만원

※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7.31(월)~8.4(금)은 수업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사진으로 듣는 평생학습 소식

알뜰장터로 찾아간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지난 5월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 체험관이 다대포 알뜰장터에 떴다. 평생학습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뒤 참가자들은 다육식물심기, 냅킨아트로 파우치만들기, 가죽공예로 고우니열쇠고리 만들기 중 선택하여 체험했다. 아이들은 아빠와 고우니 열쇠고리도 만들어 보았다. 특히 이번 알뜰장터에는 어린이들이 쓰던 물건들을 직접 팔아보고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 hanmail.net